



82年 石油年報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編 —



1973年 第1次石油派動이후 날로 國民들의 關心이 높아가고, 國家經濟는 물론 國民個個人的 生活과도 直結되어 있는 石油에너지의 年間 使用量과 生産量등 基礎資料와 國內外石油政策등을 集大成한 「石油年報」의 發刊을 眞心으로 歡迎하며, 이 冊의 發刊에 힘써주신 石油協會의 勞苦에 致賀를 보낸다.

石油에 대한 資料는 현재 각 기관에서 산발적, 단편적으로 發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석유動向에 있어서는 利用이 불편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本 「石油年報」의 發刊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世界石油市場은 予測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世界的인 原油價의 弱勢와 이로인한 石炭등 石油代替에너지開發速度의 遲延, OPEC會員國들의 基準油價固守를 위한 生産割當制의 採択, 石油消費國들의 消費節約, 美달러貨의 強勢등 複合的인 要因들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國內

外石油市場 動向과 石油關係政策등을 파악할 수 있는 資料의 提供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石油年報」의 根本目的은 물론 石油問題가 中心이 되어야 할 것이나, 石油은 에너지의 主宗이며, 에너지政策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補強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는 석유산업의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展望을 위해 國內外에너지政策에 대한 概觀이 있어야 할 것이다. 石油은 全量輸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國內外의 石油動向에 대한 상세한 자료의 취급은 當然하다 하겠으나, 石炭의 利用增大 및 石油代替 에너지의 利用現況에 대한 資料의 수록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石油産業의 一種이면서도 資料의 集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潤滑油에 대한 資料補強이다. 潤滑油事業은 國內精油社 대부분이 運營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는 協會에서도 별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石油年報에서는 潤滑油의 需給과 潤滑油事業実績등이 포함된다면, 石油年報의 利用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國內資料에 비해 海外資料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石油類價格의 國際比較나 精油施設現況등은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現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流通經路의 國際比較, 外國石油会社들의 經營実績등이 補強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資料의 蒐集에는 經濟的, 物理的으로 많은 制約이 따른다.

어려운 狀況下에서도 이와 같이 体系있고 內容이 充實한 책이 發刊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

李 英 九 (韓國動力資源研究所 · 先任研究員)